



문 1.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flash - 플래시
- ② shrimp - 쉬림프
- ③ presentation - 프레젠테이션
- ④ Newton - 뉴턴

2

② 쉬림프(×)→슈림프(○)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따라서 'shrimp'는 [ʃrimp]로 발음되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적으므로 '슈림프'가 바른 표기이다.

문 2.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 ② 웃지만 말고 다른 말을 좀 해 보아라.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 ③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 두어야 한다.
-대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 ④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냄

1

①의 보조사 '는'은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는'은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예) 사과를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산에는 눈 내리고 들에는 비 내린다./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그 과자를 먹어는 보았다./철수가 떠나는 갔지만 연락처를 남겼다.

문 3. 다음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교씨의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다. 사악한 교씨는 문객인 동청과 작당하여 남편인 유한림마저 모함한다. 그러나 결국은 교씨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4

지문의 내용은 사악한 교씨가 사씨를 모함하여 집에서 쫓아내지만 결국은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므로 ④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이라 할 수 있다.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문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연구원이 어떤 실험을 계획하고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둘씩 조를 지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다른 작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할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 대한 보수는 각 조당 5만 원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연구원은 참가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각각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의 보수를 차등 지급하면서, 그들이 다른 작업장에서 파트너가 받은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 후 연구원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설문을 했다. ‘보수를 받고 난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나누어 받은 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연구원은 설문을 하기 전에 3만 원을 받은 참가자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해 했다. 자신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2만 원을 받은 사람도 덜 행복해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 ② 인간은 남보다 능력을 더 인정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 ③ 인간은 타인과 협력할 때 더 행복해 한다.
- ④ 인간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했을 때 더 행복해 한다.

1

실험의 결과는 결국 남보다 더 받는 것도, 덜 받는 것도 아닌 남과 동일한 보수를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해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①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는 내용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겠다.

문 5. 다음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로마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장대한 로마 유적을 먼저 보고 나면 다른 관광지의 유적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의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문명관(文明觀)이란 과거 문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① 여행할 때는 로마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다.
- ②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 ③ 문화 유적에 대한 로마인의 자부심은 본받을 만하다.
- ④ 과거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2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필자는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있다. 왜냐하면 로마가 ‘문명’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필자는 ‘로마’를 통해 ②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6.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화로운 시대에 시인의 존재는 문화의 비싼 장식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의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의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 있고,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스스로 군대를 가지지 못한 채 제정 러시아의 가혹한 탄압 아래 있던 폴란드 사람들은 시인의 존재를 민족의 재생을 예언하고 굴욕스러운 현실을 탈피하도록 격려하는 예언자로 여겼다. 또한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이산되어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시성 단테를 유일한 ‘이탈리아’로 숭앙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잔혹한 압제 하에 있었던 벨기에 사람들은 베르하렌을 조국을 상징하는 시인으로 추앙하였다.

- ① 시인의 생명(生命) ② 시인의 운명(運命)
- ③ 시인의 사명(使命) ④ 시인의 혁명(革命)

3 지문에서 필자는, 시인은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민족의 예언가나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국이 어려울 때 시인이 해야 할 ③ 시인의 사명(使命)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 7. ㉠~㉣을 시의 흐름에 맞게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빛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 기형도, 「엄마 걱정」 -

- ① ㉠: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간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다.
- ② ㉡: 관심 받지 못해 외로운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③ ㉢: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④ ㉣: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 나타나 있다.

3 기형도의 <엄마 걱정>은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렸던 어린 시절에 대한 애뜻한 추억을 노래한 시이다. ㉢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기다림과 혼자 있는 무서움, 외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지 ③ 공부하기 싫은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문 8.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歸天)」 -

- ①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 ②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 같다.
- ③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꽃처럼 여겨졌다.
- ④ 엽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

3

천상병 시인의 「귀천(歸天)」에서 ‘이슬’, ‘노을빛’, ‘소풍’ 등은 ‘유한성’과 ‘순간성’, ‘사라짐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들로, ③ ‘한바탕 꿈’과 유사한 의미인 것이다.

문 9. 두 한자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광정(匡正) - 확정(廓正)
- ② 부상(扶桑) - 함지(咸池)
- ③ 중상(中傷) - 비방(誹謗)
- ④ 갈등(葛藤) - 알력(軋轢)

2

② ‘부상(扶桑)’이란 ‘해가 뜨는 동쪽 바다’, 그리고 ‘함지(咸池)’란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이라는 뜻이므로, 대립관계에 있는 말이다. 나머지는 모두 유사한 의미를 지닌 말이다.

- ① ‘광정(匡正)’, ‘확정(廓正)’ - 잘못을 바로잡음.
- ③ ‘중상(中傷)’, ‘비방(誹謗)’ -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
- ④ 알력(軋轢) -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

문 10.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우리나라 배』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네, 그건 밑 부분이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교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①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②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③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2

지문에서 김 교수가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으므로 ②가 답이 된다.

문 1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 보다는 자상한 아버지이다.
- ② 그는 황소 같이 일을 했다.
- ③ 하루 종일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 ④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4

④ ‘그것하고’에서 ‘하고’는 구어체에서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

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붙인 것이 맞는다. 나머지 ‘보다’, ‘같이’, ‘커녕’도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야 한다.

- ① → 스승이라기보다는
- ② → 황소같이
- ③ → 밥은커녕

문 12.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해미: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 ② 이제는 안갯음할 때가 되었다.
 - 안갯음: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
- ③ 그 울타리는 오랫동안 살피지 않아 영 불쌍이 아니었다.
 - 불쌍: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 ④ 상고대가 있는 풍경을 만났다.
 -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2

②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안갯음’이다. ‘안갯음’은 자식이 커서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 ‘안갯음’

- 「1」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
- 「2」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 ≒반포(反哺).

문 13. 밑줄 친 어휘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그는 얼금얼금한 얼굴에 콧망울을 별름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 ② 그 사람 눈초리가 아래로 축 처진 것이 순하게 생겼어.
- ③ 무슨 일인지 켓밥이 흑 달아오르면서 목덜미가 저린다.
- ④ 등산을 하고 났더니 장판지가 땅긴다.

1

- ①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은 ‘콧방울’이다. ‘콧망울’은 ‘콧방울’의 잘못된 표기이다.
- ③ ‘켓밥’은 컷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로, ‘켓불’이라고도 한다.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기 때문에, 만일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 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고 갈아도 닳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이를 어찌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경설」 중에서 -

- ① 잘생긴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말에서 거사의 현실인식을 알 수 있다.
- ②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후 거울을 닦겠다는 말에서 거사가 지닌 처세관을 엿볼 수 있다.
- ④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가 드러나 있다.

4

지문에서 필자는, 세상에는 오히려 흠과 티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으므로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로만 일관하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또한 흠과 티끌을 닦하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서는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우며, 흐린 세태에 결백의 정신으로 대결하면 결국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④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는 이 글에서 볼 수 없다. 오히려 유연한 처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글이다.

문 19.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뭘요, 어텔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체다. 생변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꿈쩍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텔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딱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중략)…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험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 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중에서 -

- ①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와 교차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
 원래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시된 지문은 마치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인상을 주는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는 해설이 맞는 답이다. ① 전지적 작가 시점, ③ 3인칭 관찰자 시점, ④는 이 글과는 무관한 잘못된 설명이다.

☞ 주제 -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의 대화에서 ㉠의 대답이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라이스(Grice)는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네 가지의 ‘협력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이다. 둘째,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한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이다. 셋째,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된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이다. 넷째,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이다. 그러나 모종의 효과를 위해 이 네 가지의 격률을 위배하는 일은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언중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경우도 많다.

— <보 기> —

대화(1) ㉠: 체중이 얼마나 되니?
 ㉡: 55 kg인데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대화(2) ㉠: 얼마 전 시민 운동회가 있었다며?
 ㉡: 응. 백 미터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
 대화(3) ㉠: 너 몇 살이니?
 ㉡: 형이 열일곱 살이고, 저는 열다섯 살이지요.
 대화(4) ㉠: 점심은 뭐 먹을래?
 ㉡: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

- ① 대화(1):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② 대화(2):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③ 대화(3):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④ 대화(4):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1
 대화(1)에서의 ㉡은 ㉠ “체중이 얼마나 되니?”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 물음에 충실한 답변을 하고 있어 ‘관련성의 격률’을 바르게 지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였다는 ①이 답이 된다.

■ 문제 분석 ■

어문규정과 문법 (5)	표준어(콧방울) - 1 띄어쓰기 - 1 외래어(슈림프) - 1 현대문법(보조사, 안긴문장의 문장성분) - 2
한자 및 고유어 (4)	한자 어휘(의미 관계 '부상-함지') - 1 한자 표기[간섭(干涉)] - 1 한자 성어(사필귀정) - 1 고유어(안갯음) - 1
문학(5)	시(기형도의 '엄마 걱정', 천상병의 '귀천') - 2 소설(성석제의 '물두', 염상섭의 '만세 전') - 2 고전 산문(이규보의 '경설') - 1
비문학 읽기(6)	궁극적 의도, 제목 - 2 내용의 일치와 추론 - 2 고쳐 쓰기(퇴고) - 1 기타 - 1
지식 국어 - 9 문학과 비문학 - 11	

<총 평>

출제 형태는 최근 3년 정도를 비교 분석해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자 부문에서 '간섭(干涉)'이라는 한자 표기에 관한 내용과 '부상(扶桑)-함지(咸池)'와 같은 한자 어휘의 이해, 그리고 '안갯음'이라는 고유어의 뜻풀이 문제 등이 출제가 되어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도로 본다면 다소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된다.

그래서 한자와 고유어를 다 틀렸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문제를 실수 없이 다 맞혔다고 가정한다면 이번 시험은 기본적으로 85점 정도는 나와야 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물론 국어에서는 암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 현장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점수에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합격을 위해서라면 최소 85점 정도는 나왔어야 하며, 또 그럴 수 있는 난도의 시험이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이제 남은 6월의 지방직 시험이 있다. 지방직은 대개 국가직에 비해서 좀 더 지엽적이거나 구체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가 더 힘든 시험일 수 있다.

이제 남은 기간, 지금까지 봐왔던 책들과 자료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봐왔던 자기에게 익숙한 책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어문규정과 문법, 한자 및 고유어와 같은 '지식국어'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암기해서 맞힐 수 있는 '지식국어'에서 점수 손실이 있다면 고득점은 물론이고, 어떠한 난도의 시험이라도 합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어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85점 선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가 왜 실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실수하지 않는 연습'과 '틀리지 않는 연습'들을 잘해 나간다면, 이후에 있을 시험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최혁춘 선생